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제9장 합리주의와 성경의 권위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제9장 「합리주의와 성경의 권위」, 텍스트판 235-276쪽. 원 논문은 "The Latest Phase of Historical Rationalism," *The Presbyterian Quarterly* 9 (1895)이다.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하나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불신앙을 이기는 힘은 '외적 권위' 위에 선 분명한 교리뿐이라는 원칙이다. 외적 권위란 내 생각과 느낌 바깥에서 주어져 나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런데 당대 교회 안에서는 교리를 흐리는 '포용' 운동과 성경의 권위를 단계적으로 깎아 내는 흐름이 함께 일어났다. 워필드는 그 끝이 이성이든 마음속 성령이든 '내 정신'을 최종 권위로 삼는 합리주의라고 진단한다. 그는 이 흐름의 최신판인 리츨·하르낙 학파를 소개하고, 그 미국판 대표로 맥기퍼트의 취임 강연을 골라 해부한다. 맥기퍼트의 주장은 이렇다. 원시 교회에는 외적 권위도 정경도 없었고, 모든 신자가 성령께 직접 계시를 받았으며, 사도의 권위와 신약 정경은 2세기 교회가 영지주의와 싸우다 만든 발명품이라는 것이다. 워필드는 이 이론이 개신교의 '오직 성경'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신약과 2세기 문헌의 증거와도 맞지 않음을 차례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제 과정을 제시하며 끝맺는다. 교회는 정경이라는 개념을 유대 교회에서 물려받았고, 사도들이 준 새 책들을 구약과 같은 '성경'으로 하나씩 더해 갔다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1. 도그마와 외적 권위

워필드는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 퓨지(Edward Pusey) 이야기로 문을 연다. 옥스퍼드 운동은 19세기 영국 국교회 안에서 고대 교회와 가톨릭 전통을 되살리자고

신앙 체계'만이 불신앙을 이긴다는 확신이다. 워필드는 여기서 두 원칙을 뽑아낸다. 첫째, 참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분명한 교리 체계. 둘째, 그 체계를 받치는 외적 권위. 그는 프랑스 개혁교회 목사 모노(Adolphe Monod)의 말을 빌려 덧붙인다. 죄가 무엇인지도, 믿음의 기초도, 내면의 묵상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의 증언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대의 '새로운 종교적 사고'는 이 두 원칙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교리를 흐렸다. 비치(David N. Beach)는 삼위일체도, 그리스도라는 '조건'도, 심지어 이교와의 경계까지 지우자고 했다. 다른 쪽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단계적으로 깎았다. 그 끝에는 각자의 이성(합리주의)이나 마음속 성령(신비주의)만 남는다. 워필드는 이렇게 경고한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셨으므로, 성경을 거부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 종교인 기독교의 뿌리를 건드리는 가장 위험한 이단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독일 리츨주의를 통해 미국에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었다.

1. 불신앙을 이기는 힘: 교리 + 외적 권위
2. 죄도 믿음의 기초도 바깥의 증언으로 안다
3. '포용'은 성을 적에게 내주는 양보다
4. 권위 축소: 부수 문제 → 신앙·실천 → 전부
5. 이성이든 내적 성령이든 구조는 같다
6. 성경을 거부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성경 구절 대신 퓨지와 모노의 증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권위 있게 여기셨다”는 원리로 논증한다. 그 원리의 성경 근거는 이 책의 다른 장에서 다룬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은 채 성경을 거부할 수 없다.”

📜 2. 리츨적 합리주의 (합리주의 · 하르낙 · 맥기퍼트)

워필드는 합리주의가 불신앙에서 곧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공격을 감당할 힘이 모자란 교회 안의 변호자들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을 하나씩 내주다 생긴 결과라는 것이다. 18세기에 이신론의 압박이 있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 더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다. 그 압박 아래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는 교리를 모두 양보하자, 기독교는 '자연 종교'로 쪼그라들었다.

최신판인 리츨주의는 신학에서 '형이상학'을 걷어 낸다. 형이상학이란 하나님이 그 자체로 어떤 분이신지처럼 경험 너머를 묻는 영역이다. 리츨주의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것만 신앙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으로만 알 뿐이고, 그리스도의 선재(성육신 이전부터 계심)는 알 수 없다는 식이다. 워필드는 이것이 결국 '교리 없는 기독교'로 끝난다고 짚는다. 실제 기독교의 역사는 교리의 역사다. 그러니 리츨주의는 이 역사를 설명하려면 교리를 '바깥에서 덧씌운 부패'로 몰아야 한다.

하르낙(Adolf von Harnack)이 바로 그 일을 맡았다. 그는 교리가 복음 위에 세운 그리스 철학의 산물이며, 순수한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라고 재구성했다. 이 관점은 번역서와 독일 유학생들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 변증할 신앙이 적을수록 변증이 쉬워 보였다는 것도 매력이었다. 워필드는 그 대표로 맥기퍼트(Arthur C. McGiffert)가 유니온신학교 교회사 교수로 취임하며 한 강연 〈원시 기독교와 가톨릭적 기독교〉(1893)를 고른다. 맥기퍼트의 요지는 이렇다. 원시 교회는 성령에 기댄 '종교적 개인주의'였는데, 2세기에 외적 권위에 복종하는 '가톨릭' 교회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참 개신교 원리에서 최종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성령이다.

1. 합리주의는 교회 안의 '양보'에서 자란다
2. 리츨: 형이상학은 빼고 경험만 신앙 내용으로
3. 결과는 교리 없는 기독교
4. 하르낙: 교리 = 복음 위에 세운 그리스 철학
5. 맥기퍼트: 사도 권위·정경은 2세기의 발명
6. 맥기퍼트: 최종 기준은 성경이 아닌 성령

> **(직접 인용 없음)**

📜 3. 맥기퍼트의 발전 이론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 손에 맡겨지면, 눈덩이가 구르며 커지듯 인간의 생각이 덧붙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바로 영감된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이란 성령께서 저자들을 이끄셔서 그들이 쓴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을 말한다. 종교개혁은 이런 뜻에서 '비평 운동'이었다. 개신교 원리에는 두 면이 있다. 부정적인 면은, 사도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첨가물로 본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은 '형식적 원리'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다. 칠링워스(William Chillingworth)의 “성경,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의 종교다”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이 이것을 말한다.

개신교도 교리의 발전은 인정한다. 니케아의 기독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 안셀무스의 속죄론, 종교개혁의 칭의론이 그 예다. 다만 그것은 계시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자란 것이다. 계시는 신약에서 이미 완결되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령의 '조명'과 '새 계시'를 구분한다. 맥기퍼트는 이 구분에 실패했다. 그는 기독교가 씨앗에서 출발해 바깥 요소까지 흡수하며 자랐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요소가 정당한지는 '기독교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지로 판단하자고 한다. 그런데 그 '정신'을 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관적 판단이다.

맥기퍼트는 사도적 권위를 모든 요소에 요구하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신앙고백서 1장 6항의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와 부딪힌다. 그는 또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 원천 가운데 하나로 낮춘다. 이는 대요리문답 3문의 '유일한 규범'과 부딪힌다. 소요리문답 2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한정한다. 이로써 로마 교회의 '외적 전통'과 신비주의자의 '내적 조명'을 함께 배제한다. 그러니 신비주의에 기댄 발전 이론은 로마 교회의 이론 못지않게 개신교 원리와 모순된다.

1. 기록된 말씀은 첨가물을 거르는 고정 기준
2. 개신교도 교리 '이해'의 발전은 인정한다
3. 조명(깨닫게 하심) ≠ 새 계시(내용 추가)
4. 맥기퍼트: 기준은 '기독교 정신'과의 조화

> **(직접 인용 없음)**
> 성경 구절 대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 대요리문답 3문, 소요리문답 2문을 기준으로 맥기퍼트를 잰다.

📜 4. 맥기퍼트의 기독교 변형 이론

맥기퍼트는 역사가는 판단 없이 변화를 보여 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결국 평가 기준까지 내놓는다. 그는 니케아의 삼위일체론,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국가교회, 교황제, 미사보다 2세기의 '원시 교회 → 가톨릭교회' 변형이 더 근본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후 그만한 급의 변형은 종교개혁뿐이라고 한다. 그의 그림에서 복음은 다섯 번 바뀐다.

-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산상수훈의 윤리
- 원시 교회의 '거룩의 복음': 사실상 윤리 동호회 같은 것
- 플라톤주의자들의 '지식의 복음': 신학과 신조의 등장
- 가톨릭의 '권위의 복음'
- 개신교의 '개인적 자유의 복음'

이 그림대로라면 참 개신교는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외적 권위에도 묶이지 않는다. 결국 퀘이커식 입장이 유일한 참 개신교가 된다.

워필드는 가톨릭의 등장이 가장 심각한 변형이었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맥기퍼트의 그림은 하나하나 틀렸다고 반박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부터 교리 체계를 전제하셨고, 자신을 진리를 계시하는 분으로 나타내셨다. 사도들은 교리 체계를 권위 있게 가르쳤다. 사도의 권위와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의 초석이었다. 맥기퍼트의 원리대로라면 신약은 성령을 가로막는 '느후스단'이 된다. 느후스단은 히스기야가 우상이 되었다며 부순 놋뱀이다. 또 사도를 근거로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가 앉은 가지를 자르는 꼴이다.

결국 길은 둘뿐이다. 하나는 마음속 성령을 기준으로 삼고 사도를 그 아래 두는 길이다. 그러면 신비주의가 결국 합리주의로 변한다. 다른 하나는 사도적 계시를

수조차 없다. 그는 자기 가르침의 권위를 분명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약의 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조차 알 길이 없다.

1. 맥기퍼트: 2세기의 변형이 가장 근본적
2. 사랑 → 거룩 → 지식 → 권위 → 자유의 복음
3. 예수님의 가르침도 교리 체계를 전제한다
4. 사도의 권위와 성경은 처음부터 초석
5. 최고 기준이 동시에 둘일 수는 없다
6. 신약 없이는 성령의 존재도 모른다

> **마태복음 5:1-7:29**
> (암시) 맥기퍼트가 '윤리만의 기독교' 근거로 든 산상수훈. 워필드는 이 설교조차 교리 체계를 전제한다고 답한다.
>
>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 **열왕기하 18:4**
> 맥기퍼트 논리대로라면 성경이 부숴야 할 놋뱀(느후스단)이 된다는 경고
>
>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 **고린도전서 14:37**
> 성령을 받았다는 주장은 바울의 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는지로 검증된다. 사도의 말이 최고 기준이라는 결정적 근거
>
>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에베소서 2:20

(암시) 신앙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마태복음 7:26-27

(암시) 그 터를 떠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결론

[26]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민수기 11:5

(암시) 맥기퍼트 논리대로면 사도에게 돌아가는 것은 '애굽의 부추와 양파'를 그리워하는 일이 된다는 풍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는 두 개의 최고 기준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 5. 맥기퍼트의 원시 교회에 관한 이론

맥기퍼트는 원시 기독교를 '성령 임재 의식에 기초한 종교적 개인주의'로 요약한다. 워필드는 이 한 줄에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본다. 참인 부분은 초대 교회가 살아 있는 신앙을 성령의 일로 보았다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요엘의 약속, 주님이 떠나시며 주신 위로, 오순절, 한 몸으로 받는 세례가 모두 이를 보여 준다. 거짓인 부분은 그 성령이 신자를 객관적 권위에서 독립시켰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객관적 권위란 사도의 계시, 성례(은혜의 수단), 교회의 치리를

워필드는 사도 시대 교회가 기적으로 가득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린도전서 12-14장). 하지만 맥기퍼트는 그 초자연적 성격을 세 방향으로 부풀린다.

- **은사의 보편화.** 기적 은사는 '사도의 표'였고 사도의 안수로 전해졌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설교로 회심했지만 성령의 은사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받았다. 사도가 아닌 사람의 안수로 은사가 전해졌다는 기록은 없다.
- **계시의 보편화.** 예언·통역·계시의 은사는 일부에게만 주어졌다. 사도의 말은 오히려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시험하는 기준이었다.
- **초자연 시대의 2세기 연장.**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은 자신을 사도와 분명히 구별했다. 사도의 글은 구약과 함께 '성경'으로 인용되었다. 2세기 초 문헌에는 은사 언급이 드물고 막연하다. 은사는 사도에게 회심한 세대와 함께 사라졌고, 후대의 풍성한 기적 이야기는 외경에서 나왔다.

결국 이 재구성은 신약의 절대 권위를 무너뜨리고, 퀘이커식 '내면의 빛'을 최고 권위로 세운다.

1. 참: 신앙은 성령이 일으키신다
2. 거짓: 성령이 외적 권위에서 독립시킨다
3. 기적 은사는 사도의 안수와 함께 왔다
4. 계시 은사는 일부에게, 사도의 말이 기준
5. 2세기 교부들은 스스로 사도와 구별했다
6. 결론: 신약 대신 '내면의 빛'이 최고 권위

> **고린도전서 12:3**
>
> (암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신앙의 시작이 성령의 일이라는 '참인 부분'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 **요엘 2:28-29**
>
> (암시) 새 언약 시대의 성령 부어 주심 약속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사도행전 2:1-4

(암시) 오순절에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해 교회가 시작됨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전서 12:1-14:40

사도 시대 교회의 은사 넘치는 예배 모습. 원문은 '12장부터 14장'으로 표기

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

사도행전 8:5-24

빌립의 설교로 회심했으나 은사는 사도의 안수로 옴. 은사가 사도에게 묶여 있었다는 근거. 원문은 '8장'으로 표기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 그 성에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

고린도후서 12:12

(암시) 기적 은사는 '사도의 표'라는 표현의 출처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2:11

(암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은사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4:37

사도의 말이 신자의 성령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 6. 맥기퍼트의 신약 정경 기원 이론

맥기퍼트에 따르면 원시 교회에는 '사도적 정경'이라는 생각이 없었다. 정경이란 하나님이 주신 책으로서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책 목록이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영지주의자들이 자기 교리를 정당화하려고 사도 권위를 빌려 처음 '신약'을 만들었다. 영지주의는 2세기 무렵 비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이단 흐름이다. 교회는 이에 맞서려고 무엇이 참으로 사도적인지 규정하다 정경과 신앙 규범에 도달했다. 그 시기는 2세기 말 이전이다.

워필드는 여섯 가지로 반박한다.

사도의 권위가 이미 공통 기반이었다는 증거다. 몬타누스파는 이 반론의 예외가 아니다. 몬타누스파는 2세기 프리기아에서 '새 예언'을 내세운 운동인데, 교회가 아니었고 그들조차 사도와 정경을 받아들였다.

2. **출처가 어울리지 않는다.** 영지주의자들은 외적 권위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약을 버렸고, 마르키온은 신약을 가위질했다.

3. **역사 기록과 모순된다.** 교부들은 만장일치로 영지주의가 교회의 정경을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증언한다.

4. **교부들의 정직성을 부정하게 된다.** 이레나이우스는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제자였고, 마르키온 시대에 이미 청년이었다. 신약 정경이 그의 시대에 새로 생겼다면 그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5. **교회의 처지와 맞지 않는다.** 교회는 처음부터 구약이라는 외적 권위와 정경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 사도들의 글을 거기 더한 것은 자연스럽다.

6. **실제 소유의 증거가 충분하다.** '정경'이라는 이름이 4세기, '신약'이라는 이름이 2세기 말에 쓰였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따질 것은 이름의 역사가 아니라 실체의 역사다. 디모데전서 5:18과 베드로후서 3:16이 이미 신약 문서를 '성경'으로 대한다.

남는 사실은 둘뿐이다. 첫째, 2세기 후반에 증거가 많아지는 것은 그때 문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적 증언이다. 둘째, 교회가 논쟁 속에서 신약에 더 깊이 기대게 되었다. 하르낙의 표현대로 '성경을 대하는 관심의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신약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1. 맥기퍼트: 정경 개념은 영지주의가 먼저
2. 양쪽 다 사도에 호소 = 공통 기반이 있었다
3. 외적 권위를 거부한 영지주의는 창안자 못 돼
4. 이레나이우스가 거짓말했든지, 정경이 있었든지
5. 따질 것은 이름 아닌 실체의 역사
6. 2세기 말 증거 폭발은 회고적 증언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3:16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들'과 나란히 둔다. 사도 시대 안에 이미 신약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7. 신약 정경의 형성

워필드의 출발점은 교회가 '정경'이라는 개념을 발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그 개념을 구약 정경과 함께 유대 교회에서 물려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성경을 맡기셨으며, 사도들은 그것을 교회의 규범으로 주었다. 사도들은 구약 선지자보다 권위가 낮지 않았다. 그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었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했다. 그들의 명령에는 신적 권위가 있었고, 그 명령을 편지에 담아 교회에서 읽게 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경은 닫힌 목록이 아니라 자라는 목록이었다. 모세에서 말라기까지 그랬듯, 사도에게서 새 책을 받으면 하나씩 구약 곁에 '성경'으로 더했다. 이 인용 방식은 끊긴 적이 없다.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불렀고, 바울은 누가복음을 신명기와 함께 '성경'으로 인용했다. 폴리캅은 시편과 에베소서를 나란히 놓았고, 클레멘트 2서와 바나바서는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인용했다. 이것은 신약이 점점 높아진 증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이었다는 증거다. 이름도 구약 이름을 본떠 '복음과 사도들'로 불렸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이 이름을 썼다.

정경 형성사를 볼 때는 네 질문을 구분해야 한다. 정경이 언제 완성되었는가, 한 지역 교회가 언제 완전한 정경을 갖추었는가, 언제 온 교회에 퍼졌는가, 무슨 근거로 받아들였는가. 정경은 요한이 계시록을 준 98년 무렵 완성되었다. 다만

들어가는 원리는 사도가 직접 썼느냐가 아니라, 사도가 교회에 규범으로 주었느냐였다. 그래서 사도가 아닌 누가의 복음서도 성경이 되었다. 책들이 천천히 퍼졌다고 해서 교회가 자기 권위로 정경을 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1. 정경 개념은 유대 교회에서 물려받았다
2. 사도는 구약 선지자보다 낮지 않다
3. 새 책은 하나씩 구약 곁에 '성경'으로 더해짐
4. 점진적 승격이 아닌 처음부터 성경
5. 정경성 원리: 사도 저작 아닌 사도의 부과
6. 느린 확산 ≠ 교회가 정경을 결정

> **고린도후서 3:6**
>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구약 선지자와 같은 권위
>
>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 **고린도후서 3:11**
> 길이 남을 새 언약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다
>
>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 **베드로전서 1:12**
> 사도의 복음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전해졌다
>
>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 **고린도전서 2: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2

사도의 명령은 주 예수로 말미암은 권위를 지닌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그 가르침이 '편지'에 담겨 전해졌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3:14

편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라. 사도의 글이 규범이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고린도전서 14:37

바울의 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는지가 성령을 받았는지의 시험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데살로니가전서 5:27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라. 예배 중 낭독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골로새서 4:16

편지를 교회끼리 돌려 읽으라. 원문은 '4:15'로 표기했으나 낭독 지시는 4:16이다

요한계시록 1:3

읽는 자와 듣는 자의 복. 예배 낭독용 성경

>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베드로후서 1:21

성령에 이끌린 예언자가 있는 동안 정경은 자랄 수 있다고 여겨졌다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3:16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들'과 같은 반열에 둔다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디모데전서 5:18

신명기 25:4와 누가복음 10:7을 함께 '성경'으로 인용한다. 비사도 저자의 책도 성경이 된 사례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4

디모데전서 5:18이 인용한 구약 쪽 본문

>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누가복음 10:7

디모데전서 5:18이 인용한 신약 쪽 본문. 누가는 사도가 아니다

>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4:26

폴리캅이 '성경'으로 인용한 구절. 시편 4:4를 인용한 말씀으로, 시편과 에베소서가 나란히 놓인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시편 4:4

위 에베소서 구절의 구약 원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마태복음 9:13

클레멘트 2서 2:4가 '또 다른 성경'으로 인용한 말씀. 장절은 정리자 보충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44

(암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구약 명칭. 신약의 '복음과 사도들'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본떠졌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 오해와 반론

📖 용어

이전 권의

내 생각과 느낌 바깥에서 주어져 나를 판단하는 권위다. 이 장에서는 성경, 곧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을 가리킨다.

교의(도그마)
교회가 성경에서 길어 내어 믿고 고백하는 가르침의 체계다. '딱딱한 고집'이 아니라 '정리된 믿음의 내용'을 말한다.

합리주의
인간 이성을 최종 판단자로 삼아,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는 교리는 버리는 태도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와는 다르다.

신비주의
마음속 직접 체험이나 내적 음성을 최종 권위로 삼는 태도다. 워필드는 이를 감정과 직관까지 포함한 '또 다른 합리주의'로 본다.

리츨주의·형이상학
독일 신학자 리츨(Albrecht Ritschl)을 따르는 흐름으로, 하나님이 그 자체로 어떤 분인지 같은 경험 너머의 질문(형이상학)을 빼고 신자가 경험한 가치만 신앙 내용으로 삼는다.

원시 교회 / 가톨릭교회
맥기퍼트의 용어다. '원시 교회'는 사도와 그 직후 세대의 교회이고, '가톨릭교회'는 오늘의 로마 가톨릭만이 아니라 2세기 이후 감독 중심으로 조직된 고대 보편 교회를 가리킨다.

정경
하나님이 주신 책으로서 신앙과 삶의 잣대가 되는 책 목록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를 '인스트루멘툼'(instrumentum,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라 불렀다.

신앙 규범
사도적 신앙의 핵심을 짧게 요약한 고백이다. 이후 신조, 예를 들어 사도신경의 뿌리가 된다.

개신교의 형식적 원리
'오직 성경'의 원리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성경만이 최종 판단

조명과 새 계시

조명은 이미 주신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새 계시는 진리의 내용 자체가 더해지는 것이다. 개신교는 앞의 것은 지금도 있다고 믿고, 뒤의 것은 신약에서 끝났다고 본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불신앙을 이기는 힘은 외적 권위, 곧 성경 위에 선 분명한 교리다. 이성이든 마음속 음성이든 '내 정신'을 최종 권위로 삼으면 기독교는 해체된다.
- 개신교는 교리 이해의 발전을 인정하지만, 계시는 신약에서 끝났다. 성령의 조명과 새 계시는 다르다.
- 원시 교회는 '종교적 개인주의'가 아니었다. 성령은 신자를 사도의 말씀으로 묶으셨고, 사도의 말이 성령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 신약 정경은 2세기 교회의 발명품이 아니다. 교회는 정경 개념을 유대 교회에서 물려받았고, 사도들이 규범으로 준 책들을 처음부터 구약과 같은 '성경'으로 받아 하나씩 더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0편 · 66권은 누가 정했나 · 정경
- 성경론 11편 · 권위는 어디서 오나 ·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